

무한의 도리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29면에서 계속

질적 의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벗어 놔라 이 소립니다. 물이 깊어서 빠져 죽을까 봐 배 오기만 기다리니 어떻게 부처님 세계의 맛을 볼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아제' 이라고 있지요. 세 단계의 또 가지 말하지만, 여러분이 타 죽을까 봐 못 건너지는 데가 있어요. 우주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입니다. 우리 마음들이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예요.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바로 사대가 무너지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내 마음은 그대로, 자기 그릇대로 차원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또 어디 가서 태어나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소 부부가 사는 데로 들어가지 않나, 새 부부가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짐승들 곤충들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자기가 모르니까, 귀도 먹고 눈도 멀었으니 어찌 그것을 다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합류화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퍽은 강퍽대로 한테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모이죠. 우리 사람 사는 것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공업가는 공업가대로 모이고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이리저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알겠죠. 그냥 자연적으로 모이듯이 그렇게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 그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집에 들어가질 않나, 독사집에 들어가질 않나, 염소집에 들어가질 않나, 개집에 들어가질 않나! 도대체 이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적인 의식들을 다 놓는다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그 점단을 알고 한생각 끄덕하면 벌써 건너가 있고 끄덕하면 저기가 있고 만 리라도 끄덕하면 가 있고, 내 몸 아닌 내 몸이 수없이 입자가 되고 분자가 돼 가지고 수많은 중생을 건지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수많은 중생을 이끌어 가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자력은 인간의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한계가 없지만 자력은 물질이라 쓰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한계의 도리를 알 때 무심의 도법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 세상만사를 한 주먹에 놓고,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자유자재하더라 이런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유자재하더라 이거지요. 모두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남의 부모도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으니 풀 한 포기도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이심전심으로, 한마

음 한뜻으로 모두 공생·공용·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진리가, 끝간 데 없는 진리가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마음 자체의 씨가 바로 보배로구나. 그러면서도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허공을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그 마음이 그렇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묘법을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천지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에 바로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지요, 아까 얘기를 했어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희미하게 가는 것 같아요. 허아구, 참!

여러분 육신 속에 들어 있는 그 마음들이,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라고

자기 죽이는 법이 없죠.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걸 명심하시라 이겁니다. 자식도 잘못하면 "저 도둑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믿고 가르쳤더니 나를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는 주는 게 부모지 받는 게, 달라고 하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거미의 부모도 자식들한테 다 주고 자기는 껌데기로 화해서 그냥 말라서 가루가 돼 버립니다. 어머니는 알을 낳아 놓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고선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낌없이, 자식이 죽게 되면 생명을 대신해 주리만큼 그렇게 자식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껌데기로, 껌데기로 껌데기로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 갑니다.

상상하게 도와주십시오. 뿌리를 도와주면 이 파리로 가장구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한마음으로 도와주면서 건져 주면서, 자기가 예쁘다고 뿌려 놓은 씨도 건지면서, 사랑하는 부부기간에도 서로 도와 가면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한다면 젊은이들이 아마 스스로 첨단 심성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능히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할 때, 저 풀이파리 하나도 한마음 아닌 게 없이 그렇게 될 때 그 한마음 속에서 일꾼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나라에 일꾼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결처럼 스쳐 가는 그러한 논다니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만이 생겨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고생하듯 우리 국민은 서로가 고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

겁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양해하시고요, 잘 배우신 양반들이 침착하고 체계 있게 생각하고 한번 써 놔다가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스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다음은 오늘 준공법회에 즈음하여 먼저 무에 스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에 스님: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큰스님 말씀을 한 시간 가까이 들었습니다만 전혀 지루하지 않고 덜지 않은 연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또한 이렇게 다 밝으니 아마 많은 감응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게 공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맹이부터 시작하면 껌데기는 저절로 커지지만 껌데기부터 커지면 알맹이가 들지 않듯이 우리 도량도 공부하시는 스님들과 신도 분들이 있음으로써 더 커지게 되는 이런 계기를 갖는 것 같습니다. 복 짓는다고 쫓아다니면서 한 시주는 공덕이 되지 않겠지 마는 한마음으로 시주한 것은 참공덕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김 선생님께서, 전에도 이곳의 중창 행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주해 주셨으니 이 도량에서 모든 분들이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신다면 아마 도량이 더욱 빛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시주를 받고 있는데 다음에는 종각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라도 찾아 주십시오. 저희는 복 짓는 일이라고 강요해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우리나라 동참해 주시면 아마 두루두루 공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각자가 무량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내가 잠깐 말귀를 잡아야 되겠군요. 여러분이 '내가 요만한 시주를 하면 그만 큼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무에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한다면 여러분 앞에 무주상 보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든 광주이든 본원이든 여기든 어디고 간에 불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디든지 무주상 보시로 하시면 무주상 보시로 갖습니다. 여러분이 해 놓은 것은 여러분이 갖지 않는 게 없으니 누구를 줬다 안 줬다 할 것도 없죠. 감사합니다.

※ 위 법문은 1991년 7월 14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풀 한 포기의 마음이 들이 아니게 모두 합쳐서

나의 마음속에 찰나찰나 들고 나시니

어찌 내가 당당치 않으리요.



해도 되지마는 세계라고 해도 됩니다. 위라는 세상, 장이라는 세상, 간장이라는 세상, 소장이라는 세상, 이름이 그렇게 많아서 이걸 세계라고 하죠. 그냥 여러분을 해꼬지하게도 나오고 남을 해꼬지하게 마음을 일으키게도 하는 모든 의식들을 침착하게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맡겨 놓고,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다 놓고 나는 종노릇을 하십시오. 몸은 종노릇을 하면서 그 다스리는 마음은 항상 한마음으로 돼 주고 겸손하게 돼 주시란 얘깁니다.

아니, 내 몸속에 있는 진드기가 보기 싫고, 촌쟁이가 보기 싫고, 거위가 보기 싫고 이렇다면 어떻게 내 몸을 이끌고 다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존중해 줘야지요. '아! 그것도 나로구나. 나를 끌고 다니는 바로 너로구나!' 하고서 한마음으로 인정을 해 줘야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고 '너희가 모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나로구나!' 하고 인정을 해 줘야

그렇게 자기는 껌데기만 남아서 나중에 함께 가자고 해도 자식들이 안 가지요. 몸뚱이도 가지 않죠. 자기 따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부부기간에 사랑했다, 아무리 재산을 사랑했다. 집을 닦고 깨끗하게 잘해 놔다, 몸뚱이를 깨끗하게 씻고 바르고 온통 귀걸이를 달고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캠핑 와서 그저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놀다가 가기 위해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풀잎의 이슬처럼 왔다가도 그냥 스쳐 가듯이 그냥 또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애들이 공기를 놀다가도, 내 땅 내 땅 하고 놀다가도 저녁때 일마가 부르면 으레 다 버리고 툭툭 털고 일어서듯이 인생도 그렇단 말이지요.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서 무한의 도리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현실에서도 남의 뿌리를

나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잘하도록 만드는 자식들이 되어야만이 우리 국민 속에서 그런 부모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종성(鐘聲)에도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모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라면 참, 앞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화목한 꽃이, 인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꼭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바람 풍' 하더라도 여러분은 '바람 풍'으로 알아들으십시오. 나는 두서없이 말했다고 차근차근히 생각해서 내 한마음을 그렇게만 한다면 자식들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요 내 부모 조상들도 길을 찾을 것이요 복은 빛을 갈을 것이요 햇빛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풀 한 포기의 마음이 들이 아니게 모두 합쳐서 나의 마음속에 찰나찰나 들고 나시니 어찌 내가 당당치 않으리요.' 하고서 나가실

무료배송
66%



에pson AL-2310D
125,000원

무료배송
57%



고세라 FS-1120D
110,000원

무료배송
70%



OKI-B410D
90,000원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 하루사용 특AAA급 중고
- 전시장품 절대 아님
-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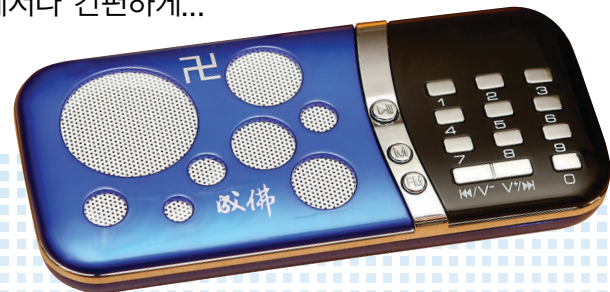
구매문의
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우**에서 철성상회 검색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6만원 (배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 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현대불교헌불상 (02)2004-8214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현의 삼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아침의 기도
-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 4. 병마 패유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만 가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영 경배
- 10. 저녁의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반송으로 왔다가
- 13. 사람을 볼 때는
-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버리면
-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광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진언 1
- 22. 광명진언 2
- 23. 개경계
- 24. 지경관음분
- 25. 예불
-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찬계
- 30. 법성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경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천안합니다
- 36. 예불가
- 37. 청법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법우 관영가
- 40. 부처님께 기림받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찰서원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김로법 전하차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성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홀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악장
- 53. 관세음보살 2악장
- 54. 개경계
- 55. 이상정법문